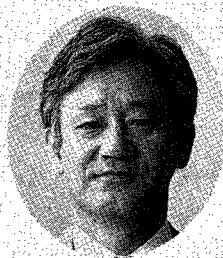


드골 精神을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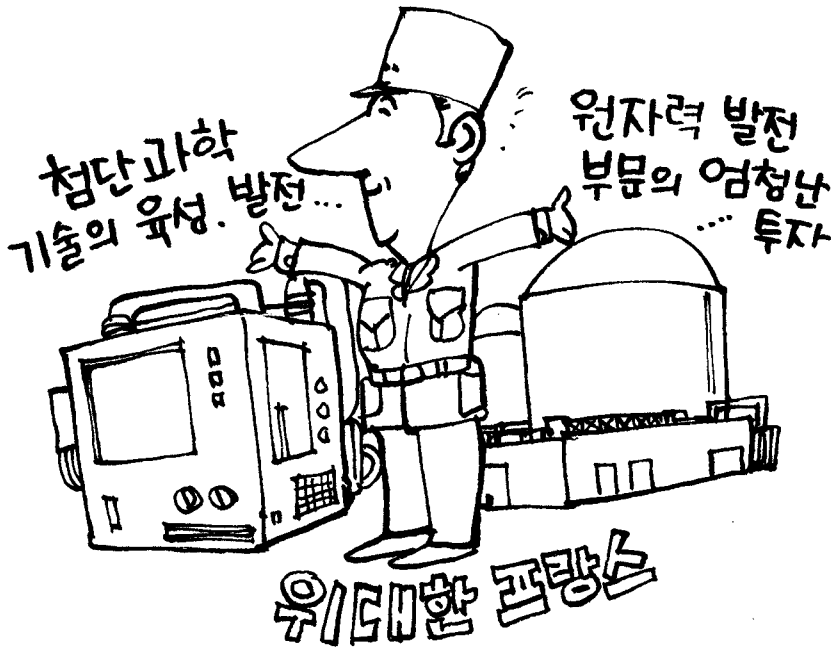


盧 潤 來

〈韓電 靈光原子力本部長〉

『위대한 프랑스의 재현』이란 구호를 높이 외치며 그 생애의 대부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바쳐 온 드골은 두번씩이나 위기에 처한 그의 조국 프랑스를 건져낸 위대한 군인이요 정치가였다. 독일과의 국경지대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요새 마지노선이 나치스 공군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수도 파리가 함락되자 드골은 독일의 점령하에 놓여 있는 프랑스 영토내에서 조직적이며 꾸준한 레지스탕스 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연합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나치스 궤멸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전후에는 내각이 무려 수십회나 바뀌는 정치적 불안정기에 따른 경제적 불황으로 프랑스사회가 먹구름속에 방황하고 있던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식민지였던 알제리 전쟁에 깊숙히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서 국민들의 강력한 부름에 정치일선에 되돌아와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고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화무십일홍이라던가 오랜 집권에 국민의 염증을 알아차린 드골은 그에 대한 불신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만 그의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미련없이 권좌를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또하나의 유명한 일화를 남겼으며, 사후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비석에는 일절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샤르르 드골(1890~1970)』이라고 성명과 생사년만 남겨 그의 곧은 성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같이 널리 알려진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나 곧은 성품만을 배우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대한 프랑스를 이룩한 그 많은 업적 가운데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첨단과학의 발전에 쏟은 그의 깊은 관심과 국가적 지원을 잊을 수 없다. 경제발전에는 풍부한 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반하여 프랑스에는 에너지자원이 없는 점에 유의하여 그는 원자력이란 첨단과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는데, 오늘날 프랑스는 세계제일의 원전



보유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발전원가를 최대한으로 제용, 89년도에는 구주 여러나라에 420억kWh의 전력에너지를 수출함으로써 25억 불의 판매수익을 남긴바 있다.

이같이 전력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난립되어 있었던 전력산업계를 부문별로 전문화시킨 것인데, 예컨대, 원자로 제작회사는 프라마툼, 터빈발전기제작은 알스 톰, 핵연료는 프라제마, 폐기물처분은 고준위인 경우 코제마, 저준위인 경우 앙그라 등으로 계열화하여 전력회사인 프랑스전력공사로 하여금 값싼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프랑스는 일차적으로 핵보유국이 됨으로서 이제까지 영·미에 의존하던 자유세계의 질서에서 구주제일주의로 전향하여 국제무대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집착하여 원전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프랑스 국내산업화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을 실현시

킬 수 있었던 것이다.

드골은 또한 재생 에너지의 개발에도 관심이 높아 조력발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비록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긴 했으나 랑스 발전은 세계유일의 조력으로 그 기술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 밖에도 초음속 민항기인 콩코드와 초고속전철인 떼제베의 개발에도 그의 숨은 공로가 있었음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지금에 와서 국내의 전력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지속될 전망이어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의 공급과 깨끗한 에너지의 보급이란 차원에서도 국내 원전의 개발이 좀 더 일찍부터 이루어졌었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엄청난 국익을 가능케 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하는 것이다.